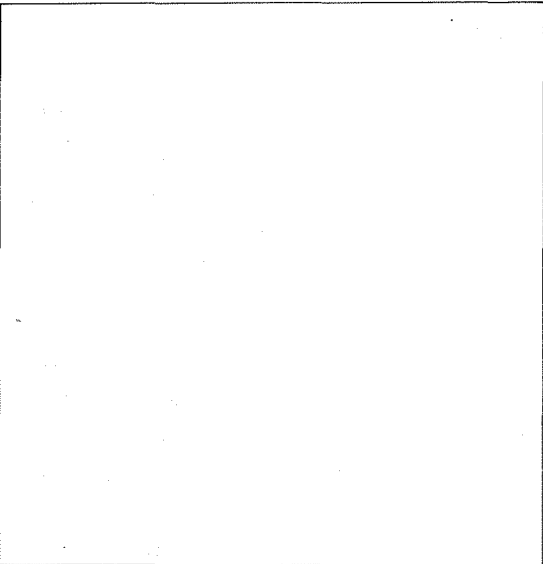


왜 제3의 석유위기는 오지 않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석유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제상황의 윤곽을 제공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먼저 OPEC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석유시장에서의 지배적 역할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으며 추후

## 제3차 석유위기에 대한 OPEC의 견해



로 막대한 매장량의 힘으로 더욱 현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잠시 다음의 시나리오를 고찰해보도록 하자. OPEC회원국들은 9,910억배럴에 달하는 세계전체 확인매장량中 약 77%를 점유하고 있다. 공산권을 제외한다면, OPEC의 전체매장량 세어는 '88년 말 기준으로 9,080억 배럴의 세계매장량중 84%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OPEC의 생산세어는 세계전체의 34%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석유생산의 거의 66%가 세계매장량의 단지 23%를 차지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천연가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OPEC은 세계전체 천연가스매장량中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생산세어는 1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非OPEC생산이 이미 절정에 달해있으며, 증가하는 석유수요는 OPEC회원국들의 제한된 생산능력을 완화시킴으로써 또는 추후의 추가시설로써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언하면, OPEC가 석유·가스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이 곧 과거의 오일쇼크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나는 또다른 오일쇼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로, '73년의 유가상승은 석유가 한정된 자원이라

이 논문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전사무총장인 HE Dr Subroto가 지난해 유럽 정치인들과 학자들의 저명한 모임인 'the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에서 행한 연설 내용을 옮긴 것이다. 수브로토는 이 연설에서 만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과거의 불신을 뛰어넘어 석유교역에 있어서의 전지구적인 상호의존성을 받아들인다면 油價의 격심한 변동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편집자 註>

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우스울 정도로 낮게 책정돼 있었던 석유가격의 예정된 조정이었다. '79년에 있어서의 유가급등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양쪽의 장기적 목표와 이익을 적절히 고려치 않고 단기적 효과에 반응했던 결과였다. 둘째로, 시간이 흐르면서 에너지부문, 석유산업자체,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73년과 '79년에 존재하였던 상황과는 다른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 당시 OPEC는 유가조정을 야기시켰던 상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고찰하는데 있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73년에 OPEC는 석유수입을 지키려는 절망적인 노력으로 석유회사들과 일련의 지속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동년 10월 12일 이 협상은 깨어지고 말았다. 이로부터 4일 후인 10월 16일, OPEC는 자신의 원유에 대한 가격통제를 결의했고, 페르시아만 회원국 관계장관회의는 공시가격을 배럴당 3.01달러에서 5.12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하였다.

OPEC측에서의 최초의 주권행사와 뒤에 잇달은 유가조정은 개발도상권 산유국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있던 그들의 고갈자원에 대한 적정가격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유가조정이 소비자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충격에 대한 대처는 필수적인 것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 충격 처리의 긍정적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제2차 오일쇼크로 눈을 돌려보자 '79년 초의 이란회교혁명의 발발로 국제석유시장에서는 석유부족사태가 발발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 결과로서 '78년 겨울과 '79년 사이에 국제석유시장에서 유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그리고 '79년 11월에는 OPEC의 현물원유가가 배럴당 41달러를 넘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 상태에서 OPEC는 배럴당 41달러의 최고유가와 아울러 최초로 배럴당 32달러와 36달러의 이중유가제도를 운영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겨우 10개월이 지난 '81년 10월에, OPEC는 이중유가제도를 폐지하고 배럴당 34달러의 단일유가제도로 대체했다.

하지만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희생을 요구하였다.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OPEC오일의존에 대한 두려움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의존성을 낮추려는 수많은 조치들을 강구하게끔 만들었다. 즉 에너지효율성의 증대, 대체에너지의 개발, 석유회수기술의 촉진 등의 모습을 띤 에너지의식이 강조되고, 非OPEC원유의 시장유입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되어 세계의 에너지시장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 채무국으로의 전략

OPEC회원국들도 또한 반대급부로 마켓세어의 축소, 유가하락과 이에 따른 석유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특징 지워지는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이의 결과로 일부 회원국들은 채무국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88년 OPEC회원국들의 부채는 2,16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악화되는 국제수지는 경상계정의 적자가 184억 달러에 이르렀다.

세계에너지수요는 경제활동수준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결정된다. 회고하여 보건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였는바, 60년대의 5.0%에서 70년대에는 3.6%, 그리고 80년대에는 2.5%까지 하락하였다. 선진공업국가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주요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유가쇼크가 주요 소비자인 선진공업국들뿐만 아니라 선진공업국들의 자국민감한 생산자들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오일쇼크는 OECD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OPEC경제에도 파급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진적인 유가의 상승을 추구하고 있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억제될 수 있다면 향후 5년간의 세계 연평균경제성장률은 적어도 2.5% 아니면 3.0%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은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는 이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너지시장으로 눈을 돌려, 실질유가가 배럴당 18달러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세계경제성장률은 2.5%와 3% 사이일 것이고 세계에너지수요는 현재의 일산 105백만 석유환산배럴에서 1995년에는 118백만 BOE/

D, 2000년에는 124백만BOE/D가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망이다. 이것은 연평균증가율이 1.5% 정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OECD의 연간 에너지 수요 신장률은 현재의 2%에서 2000년까지는 약 1% 정도로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 2% 이상의 신장률이 200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기간 중의 OPEC 신장률은 약 1.5%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 증대되는 수요

전체에너지 가운데서 석유가 차지하는 세어가 현재의 48%에서 2000년의 46%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절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세계석유수요는 1989년의 50백만B/D에서 2000년에는 약 57백만B/D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기간중 OECD의 석유수요는 현재의 36백만B/D에서 39백만B/D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개발도상국들의 수요는 14백만 B/D에서 18백만 B/D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석유교역에 있어서의 OPEC 세어는 현재의 43%에서 '95년에는 49%, 2000년에는 5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재의 OPEC 공급량이 20~21백만B/D인 것과 비교하여 향후 6년간은 27백만B/D, 금세기말까지는 30백만B/D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非OPEC의 공급은 1995년까지는 1백만B/D, 2000년까지는 약 2백만B/D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석유수요의 꾸준한 증가-향후 10년동안 1~2%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는 현재 18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는 원유가에서의 점진적 상승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완만한 유가상승은 세계경제가 2.5~3%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1992~1993년에 단일내부시장을 설립하려는 EEC(유럽경제공동체) 계획에 눈을 돌려보도록 하자. 여러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중대한 변화 중에서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의도는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공동체 석유의존도의 감축, 發電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개발, 에너지가격체계의 투명성 등을 달성하는 것이다. EEC는 모든 부문에서 더 높은 에너지효율성을 성취하고자 한다. 석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목표가 석유대체정책

을 유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율 안에서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원유수입을 지속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단일시장이 각종 세금과 관세, 그밖의 방법으로 OPEC로부터의 석유수입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유럽은 OPEC에 있어 주요 시장의 하나이며, OPEC는 EEC가 그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OPEC로부터의 공급안정성에 대한 그들 자신의 필요,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OPEC의 수요안정성의 필요를 타협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탐사와 생산에 있어서의 추가투자를 수행하는 OPEC의 능력은 교역파트너의 장래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도 의존하게 될 것이다.

동구에서의 일련의 사태들 역시 그것들이 OPEC석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정책, 그리고 기타 공산권에서의 자유화정책은 세계전체 특히 동구권 국가들에 있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슴 떨리게 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석유수출업자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함축된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련은 아주 낮은 가격으로 동구권 소비국들에게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만일 소련이- 동구권에서의 정치발전, 그리고 자신의 경제구조개편과 발전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외화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정책의 폐지를 결정한다면, 동구의 소비국들은 정상시장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다. 소련에서의 급속한 근대화진전은 국내의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고 이것은 소련의 석유수출감소를 의미하여 결국은 서방의 대OPEC오일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투자와 기술의 유입은 석유생산수준을 향상시켜 서방으로의 석유수출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서방의 에너지공급다변화정책에 근거하여 서방으로의 가스판매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소련석유산업이 심각한 기술상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88년에 서방으로의 원유수출이 54.7백만톤이었던데 비해, 작금의 소련 계획입안자들은 단지 25백만톤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정통한 업계소식통은 말한다. 동구권으로의 수출을 포함한 소련의 총원유수출이 '88년에 136.6백만톤에

서 144.2백만톤으로 증가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소련 당국이 계속적인 산출제한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리하여 소련에서의 경제상황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관계개선

석유생산자와 그들의 전통적인 시장 사이에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상황은 무엇인가? 첫번째는 OPEC원유에의 증대되는 의존이 매끄럽고 악의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OPEC생산자들과 소비국들 사이에 존재했었던 대결의 분위기는 불안정과 격심한 유가변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에 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非OPEC생산자들은 시장세어의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생산과 가격설정을 OPEC와 힘자라는 데까지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향후의 오일쇼크를 피할 수 있는 두번째의 전제조건은 현재 시장의 힘을 고려치 않고 진행중인 석유수요를 줄이려는 소비국들의 특정 조치들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의 석유수요가 OPEC에 의하여 충당될 것이라면, OPEC은 시장의 힘이 아닌 충동에 의한 보호주의의 성격을 띤 정책들의 폐기를 촉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고비용의 국내에너지산업을 보호하거나 또는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석유제품에 대하여 차별과세나 특별세를 도입하는 것은 그 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목적의 세금은 경제 진실을 왜곡시키며 단기적 이익의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결정적인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상호의존성

증대되는 외국산 원유의 수입이 그들의 경제를 더욱 경쟁력있게 만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국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OPEC로부터의 석유수입이 일부 강력한 경제대국들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우리는 솔직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지구적인 상호의존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의존—그것이 석유수입에 대한 것이든 그밖의 다른 것에 대한 것이든—속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OPEC 국가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삶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무역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무역이 번영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조화와 이해를 촉진시킨다. 석유교역이 달라야 할게 무엇이란 말인가? OPEC를 그 목적이 서방세계를 목조르기 위한 잔인무도한 카르텔로 보는 것은 완전히 틀리고 오도된 시각이다. OPEC국가들은 그 유일한 목적이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필요와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필요를 일치시키려는 석유의 교역자요, 책임있는 사업파트너인 것이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협상에서 상호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창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로, 주요소비국들에서의 하류부문에 대한 OPEC의 투자는 촉진되어야 하며, OPEC의 이러한 선의의 제스처를 좌절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방해물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제조건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키고 조장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선의의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있어 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차이점을 해소하고, 또 그들을 분열시켰던 문제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양당사자의 모임은 상호이해를 갖게 할 것이며 오일쇼크를 유발시킬 지도 모르는 일방적 행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생산자들이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에너지는 매우 전략적인 상품이므로 시장에서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86년의 오일 시장붕괴는 이러한 협조결핍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실례인 것이다. 생산자 사이의 협력, 더 나아

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협력은 앞으로 오일쇼크가 없는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에 있어 시장의 안정이 공급의 안정을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유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오일의 흐름에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OPEC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으며 또 원하고 있다.

환원하면, OPEC 역시 안정—그들에게는 수요의 예측가능성을 의미하는—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예산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예상수요를 알아야 하고 여기에 맞춰 생산을 계획하여야만 한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위하여 OPEC원유와 같은 오직 하나의 시장제품에 의존하게 될 때 이것은 한층 더 필요하게 된다. 만일 OPEC가 앞으로의 오일요구를 담당하여야 된다면, OPEC는 자신의 투자가 향후의 수요에 의해서 정당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그것은 OPEC 회원국들의 소비국 하류부문에의 진출이다. 이미 약 1.7백만B/D의 원유가 이들 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이것은 OPEC가 그들의 원유와 석유제품

의 배출을 공고히 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들 시장의 소비자들에게는 오일의 흐름을 보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오일쇼크를 촉진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상호신뢰

이제 OPEC와 협력하여 시장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들은 非OPEC국가들이라고 생각한다. OPEC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안정이라는 것은 일단 획득되면 그 자신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것은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양육되고 지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OPEC는 이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더욱 연륜이 쌓이고 현명해졌다.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 90년대의 진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게임의 룰이 변화되었고, 당사자들은 그들의 전술을 바꿔야 하며, 그리고 관람자들은 더 나은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페어 플레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상호신뢰와 존경의 씨앗을 뿌려야만 될 것이다. <최종호 역> ♣

## 무재해기 계양 지상 캠페인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무재해운동의 기본정신은  
 인간존중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그 심볼로  
 무재해 기를 계양합시다.  
 경영자·근로자는  
 펄럭이는 무재해 기를 보며  
 안전생활을 다짐합시다.

